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

2018년 제3회 고산문학학술제

〈어부사시사〉의 문예미학과 현대적 재창조

2018. 11. 9 (금) 10:00 AM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관은

1200여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해양개척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8년 2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고산학회

03643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81

대표전화: (02)396-1298 / 팩스: (02)720-5049 / 이메일: kosanstudies@daum.net

민대 RIKS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대표전화 : (02)3290-1610-3 / 팩스 : (02)926-8385

완도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대표전화 : (061)550-5460

주최 완도군 주관 민대 RIKS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후원 고산학회

모시는 글

서늘한 바람과 더불어 가을 하늘이 무척 높고도 맑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청정바다수도 완도에서 제3회 고산문학학술제를 열어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고산 윤선도(1587~1671) 선생은 조선 중기 정치와 사상, 그리고 문학계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위대한 학자이자 문인입니다. 〈어부사시사〉와 같은 탁월한 우리말 노래를 창작한 뛰어난 문학가이자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예술인이셨던 고산 선생은 세연정을 비롯한 부용동 일대의 원림 조성을 통하여 뛰어난 조형미학을 펼쳐 보인 건축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어 당대 사상계에서 호남 사림의 계보를 잇는 학자로서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고산 선생은 오늘날까지도 선비정신의 사표이자 종합적 예술가의 표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산 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완도군에서, 고산 윤선도의 문학과 예술 세계를 탐색하고 그에 대한 오늘날 현대사회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주제로 제3회 고산문학학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고산문학학술제에서는 전문 학자를 비롯하여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모여 고산 예술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와 좌담회를 통해 고산 선생이 남긴 정신적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에도 계속해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산 선생의 삶과 문예, 그리고 현대적 계승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수 **신 우 철**

고려대학교 교수, 고산학회 이사 **이 형 대**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신성환(강원대 교수)
10:00-10:10	개회사	이형대(고려대 교수, 고산학회 이사)
10:10-10:20	축 사	신우철(완도군수)
학술대회		**사회: 신성환(강원대 교수)**
10:20-10:50	한국 대중음악과 어부사시사의 변용 - 박애경(연세대 교수)	
10:50-11:20	〈어부사시사〉에 접속하는 현대시(조)의 정치적 상상력 - 고명철(광운대 교수)	
11:20-11:50	〈어부사시사〉의 공간과 시간 - 김신중(전남대 교수)	
11:50-12:20	한국 무용극의 〈어부사시사〉 - 정란(무용가, 전목포시립무용단 예술감독)	
12:20-13:30	점심식사	
13:30-14:00	한국화와 〈어부사시사〉 - 정종미(화가, 고려대 교수)	
14:00-15:00	토론 및 학술좌담회	좌장: 이형대(고려대)
	- 박애경(연세대), 고명철(광운대), 정종미(고려대), 김신중(전남대), 정 란(무용가)	